부처의 경지로 이끄는 여섯 글자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법장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육자진언 수행법 · 수행체계 총망라
티베트 경론서 육자진언 해석하고
수행법 제시 육자진언 수행지침서
최초 설한 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
현 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정립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옴 마니 반 메훔',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때마다 가장 많이 독송되는 진언 중 하나이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이라는 긴 이름으로도 불리는 육자진언이다. 불교 국가인 티베트나 부탄, 그리고 몽골, 대만 등지에서도 이에 대한 뿌리 깊은 신앙과 오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티베트의 경우 사원 주변이나 성지에 '옴마니반메훔'을 한 자 한 자 돌에 새기고 채색하여 안치하거나 이것이 새겨진 마니륜을 돌리면서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육자진언은 삶의 일부이며 오래된 '수행'이다. 그만큼 티베트에는 육자진언과 관련된 경론이나 수행법이 다양하게 전해져오고 있다.

책 〈육자진언의 수행체계〉는 티베트불교의 전통인 육자진언 수행법과 수행체계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육자진언 연구서이다. 책은 한역에 비해 육자진언 관련 경론들이 상당수 잘 보존되어 있는 티베트 경론에서 육자진언 해석을 총망라하고 그 속에 담긴 수행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 육자진언 수행지침서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수행과제과 방법들은 불교의 수행 목표인 해탈과 부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육자진언은 대자대비의 상징인 성관자재의 진언 중 하나이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후대의 어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진언을 금구(金口) 등으로써 최초로 설한 인물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육자진언수행에 대한 신심과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의 신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수행을 해 나간다면 시종일관 정진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지향하는 바 수행의 결실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자진언수행의 기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육자진언 수행의 결실을 이루는 근원적 토대이자 원동력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책은 이처럼 대승불교권에서 일상화되고 중요시되는 육자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서로, 두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진각종의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수행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제1장에서는 티베트 경론에 나타난 육자진언의 전거를 밝히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자진언에 관한 티베트 경론은 총 39종이며, 이를 육자진언의 네 가지 주제인 기원, 공덕, 상징적 의미, 수습법 및 염송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경전 분석을 통해 육자진언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육자진언은 명호주의 왕으로서 그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며, 육자진언은 '보리심'과 '공성을 요해하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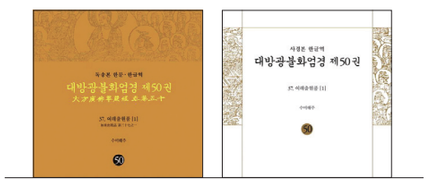
즉 육자진언수행은 결코 범부들이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하는 하근기의 수행이 아닌, 대승불교 수행의 최상의 목표인 자리이타의 완성, 즉 해탈과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승한 공덕이 있는 수행법이다.

제2장은 티베트 경론을 중심으로 한 육자진언의 수행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현 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정립했다. 티베트 경론의 육자의 성취법 등에서 제시하는 수행과제는 수습을 병행한 염송수행으로, 수습 및 염송 준비 → 본 수습 및 염송 → 수습 및 염송의 마무리 실천행의 순서로, 단계별 수행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티베트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누구나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도록, 반드시 익혀야 할 수습 및 염송 과제를 적절한 수준과 분량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은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염송하기 쉽다. 이렇게 수행하기 쉽지만, 순수한 마음동기, 바른 신심, 간절한 정성, 쉼 없는 정진력의 바탕 위에 이를 꾸준히 염송해 나간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도량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덕은 결코 적지 않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대인들이 쉬우면서도 바른 수행법을 찾아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 근원적인 목표도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저자인 법장 스님은 1995년 사미니계를, 2001년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운문사 승가대학과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2007년 명성 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같은 해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주로 인도 다람싸라에 소재하고 있는 '게덴 최링'이라는 여성 출가자 승가대학에서 수학했다. 2023년 8월에 위덕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로 활동하면서 티베트 경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역주서에는 제5대 뻰첸라마 롭상예쎠의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 '육자진언(六字眞言)의 표기와 명칭에 관한 고찰'과 '자립논증파(自立論證派)의 십이연기 해석 연구-제쭌 최끼곌첸의 〈연기(緣起)의 총의(總義)〉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해주 스님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중 제50권 발간



대방광불화엄경 독송본 전 80권 중 50권
실차난타 한역, 해주 스님 한글역
담앤북스 / 1만2천원

여래출현품 총 3편 중 1편 수록
여래의 공덕과 지혜 자비 드러내
"신행 · 해탈에 큰 의지처 되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해주 스님(수미정사 주지)이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한 화엄경 수행서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과 〈사경본 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을 출간했다.

수미정사 불전연구원은 불자와 대중을 위해 독송본·사경본 〈화엄경〉을 출간하고 있다. 2020년 8월 1~5권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매달 독송본과 사경본 각 한 권씩을 출간하고 있으며, 2027년 5월경 총 80권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은 본문 왼쪽 면에 한문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한글 번역을 수록했다. 한문 원문의 저본은 고려대장경의 조선시대 인경본이다. 저본에서 누락되거나 글자가 다른 부분은 고려대장경 각 권 말미에 교감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경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 여러 교감본을 참조했다. 한글 번역은 기존 번역본과 강설집을 참고하되 해석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해주 스님의 해설을 붙였다.

〈사경본 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은 독송본에 수록된 한글 번역을 사경하기 쉽게 편집했다. 사경할 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책장이 잘 펴지게 사철제본 방식으로 제작했다.

〈화엄경〉으로 널리 알려진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님이 성취한 깨달음의 세계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법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경전 가운데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화엄경〉은 8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내용으로, 선지식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경전이다.

이번에 출간된 제50권에는 '여래출현품(1)'이 수록됐다. '여래출현품'은 총 3권으로,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베푸신 온갖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낱낱이 드러내는 품이다. 보현보살이 여래 출현의 법상(法相)과 여래의 신업(身業)을 열 가지 비유를 들어 밝히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람 속 여행하며 찍은 쉼표



마음의 쉼표 하나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 1만3000원

"이다음에 우리 딸, 네가 가고 싶은 곳에 혼자 찾아갈 수 있게 잘 크고, 이름이 세상에 나는 것보다 사람의 맘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엄마는 그게 늘 바람이야. 기도이기도 해."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작가는 초등학교 1학년 등굣길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듣던 이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글을 써왔다.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들과 귀향 이야기, 화두처럼 찾던 길에 대한 단상들,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아릿한 이야기까지 세상을 향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글로 표현해온 그가 첫 수필집 〈마음의 쉼표 하나〉를 펴냈다. 남들보다 느리기에 더 잘 보였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고마운 이들에게 보낸 편지, 잊지 못한 사랑 이야기, 길 끝나는 곳에서 만난 산사와 산사에서 생각났던 영화 한 편,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공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감성적 시선으로 지나온 일상을 되짚으며 과거와 현재를 지나 내일의 의미까지 생각한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작가는 스스로에게 수필집에서 세상이 아프고 힘들고 작아 보여도 잠시 멈춰 서면 그지없이 아름답다며 간절하고 애틋한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책 속에 실린 잔잔한 흔적들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아, 나도 그랬어'라며 공감의 미소를 짓고 숨찬 언덕을 올라가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세상의 쉼표 하나가 되길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